

강독 수업과 연계한 판소리계 소설 교재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김서윤**

<차 례>

1. 서론
2. 판소리계 소설 출판 경향과 강독 수업용 교재의 요건
3. 강독 수업과 연계한 판소리계 소설 교재 제작과 활용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전공과목인 고전소설 강독 수업에서 판소리계 소설을 다룰 때 필요한 교재 제작 기준을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 역주본은 크게 일반 독자용 현대역본과 전문 연구자용 교주본으로 나뉘는데, 강독 수업의 경우 도입 단계에서는 일반 독자로서 작품을 접하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공생으로서 원전 해독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현대역본과 교주본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독 수업이 추구하는 원전 해독의 본질이 공동체 단위의 낭독이라는 점과 함께 낭독의 목적이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 표현과 심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전 낭독이 아직 낮은 수강생들이 이미 익숙한 묵독 방식을 활용하여 낭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위계화해야 한다. 처음 강독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묵독을 통한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어 쉽게 풀어쓰기 된 현대역본을 활용하되, 이후 점차 원전이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청각적 요소들을 낭독을 통해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원문이 보존된 교주본의 활용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도를 높이는 것이 판소리계 소설 강독 수업의 교재 위계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목독 단계에서부터 세부 정보 습득보다는 장면별로 인물의 정서와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목독의 결과가 낭독 단계에서 장면의 정서적 의미에 맞게 음성을 조율하는 토대가 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수업 목적을 교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목독 단계에서 활용하게 될 현대역 교재에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수록하고 한시나 고사 인용 대목에 적절한 부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과 정서적 반응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문 낭독 단계에서 활용할 교주본 형태의 교재는 수강생이 직접 오디오 파일 형태로도 제작해 봄으로써 자신의 낭독을 성찰하고 상호 간 비평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전소설 강독 수업, 판소리계 소설 교재, 현대역본, 교주본, 목독, 낭독, 위계화

1. 서론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학부 교육과정에는 으레 고전소설 강독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강독 수업 교재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장르를 고루 포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바, 판소리계 소설도 한 편 이상 다루게 된다. 판소리계 소설은 학습자들이 줄거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어 강독을 진행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 또 수업 중간에 판소리 공연 영상을 감상하며 소설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다.

강독 수업은 전공과목 수강생들이 고전소설 원본의 내용과 표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전공생들의 고전문학 원전 해독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작품별로 대표 이본을 선정하여 영인본 형태로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사본이나 목판본의 서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현대의 활자체로 정리된 보조교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등 잘 알려진 이본의 경우 현대어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어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 어떤 것을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게 된다. 서체를 가로쓰기 활자체로 바꾸고 구두점과 띄어쓰기 정도만 다듬은 교주본의 경우, 영인본을 충실히 읽어 나가면서 참조하기에 적합하지만 가독성은 높지 않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주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각주 자체가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교수자가 어휘와 고사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전소설 특유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고 종결 표현도 현대식으로 바꾼 현대역본의 경우, 읽으면서 바로 해당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학습자들이 원문이 아닌 현대역에 의존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거나 풀어쓰는 과정에서 원문의 어감이 훼손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강독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판소리계 소설 보조교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강독 수업에 사용하기 적합한 보조교재 제작 원칙을 점검해 보고, 현대 독자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원전의 내용과 표현 또한 음미할 수 있는 고전문학 출판물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강독 교재의 위계화 방안을 천착해 볼 것이다. 강독 수업은 고전소설에 대해 고교생 수준의 배경지식과 독서 경험을 갖춘 독자들을 상대로 점차 원전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위계화 된 교재를 필요로 한다. 수업 초반에는 현대역본을 활용하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주본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영인본만으로도 강독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업의 단계성에 착안한다면, 현대 독자를 위한 고전소설 출판물이 어떠한 위계에 따라 개발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판소리계 소설의 출판 경향과 강독 수업용 교재의 요건

전통 사회에서 고전소설은 주로 낭독으로 향유되었다. 낭독은 글의 내용을 독자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음성으로 실현하는 읽기 방법으로, 입으로 소리 내어 글을 읽는 음독의 한 종류이다.¹⁾ 낭독은 표정과 몸짓 등 시각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단순 음독과는 달리 연행적 성격을 띤다.²⁾ 문맹률이 높고 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전통 사회에서 고전소설은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낭독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듣는 방식으로 향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전소설 특유의 운율감 있는 유려한 문장은 눈으로 읽기보다는 귀로 듣기에 특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은 일상적인 입말이 생생하게 구사되며, 음성상징어나 언어유희 등 청각적 구연을 다채롭게 하는 표현 요소가 풍부하여 낭독에 적합하였다.³⁾

또한 고전소설 낭독은 독자들 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낭독’으로서 작품을 통해 친밀감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공동체 지향의 독서

1) 전두리, 「낭독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모색」,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576쪽.

2) 김수희, 「낭독의 발견 - 일본고전문학과 낭독문화」, 『일본어문학』 51, 일본어문학회, 2010, 198쪽.

3) 고전소설 낭독 문화는 조수삼, 이옥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18세기 무렵 이미 성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마을 사랑방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낭독되었음이 20세기 초 문인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기대, 「고전소설 낭독의 관련 기록과 현재적 전승 양상」,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2014, 285~298쪽; 이민희, 「고소설 낭독의 문화사회사적 실재와 그 의미 -수직적 낭독과 수평적 낭독의 이해」, 『연민학지』 38, 연민학회, 2022, 379~380쪽.

방식이었다.⁴⁾ 낭독자와 청중이 같은 시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책을 읽는 가운데 낭독의 속도와 순서 등이 조율될 수 있었다.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어려운 한시나 한문 고사가 자주 등장하는데도 청중이 무리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낭독자와 청중이 수시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단어나 어구에 대해 뜻을 묻기도 하고 한 번 더 읽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이 낭독의 장점이었다.⁵⁾

그러나 오늘날의 고전소설 현대역은 대개 ‘눈으로 읽기’를 전제로 내용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독을 추구하고 있다.⁶⁾ 고전소설 원문에는 낭독 현장에서 청중의 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듬감이 내포되어 있으며, 낭독자의 음색과 어조에 따라 다채롭게 구현될 수 있는 청각적 요소들이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으나, 작품 전체를 개인 목독용 텍스트로 다듬는 과정에서 원문을 현대의 일상어로 쉽게 풀어쓰고 문장 구조를 현대의 독서물 기준으로 간명하게 바꾸는 윤패 작업을 거치게 된다. 원문의 고유한 낭독적 특질이 상실되더라도 눈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유로는 현대의 독서 문화가 이미 개인 목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고전문학의 저변 확대를 지향하는 현대역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대중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수능 및 논술 대비 목적이 강해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 출판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원문을 가능한 한 쉽게 풀어쓰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⁷⁾

4) 이민희(2022), 위의 논문, 386쪽.

5) <춘향전>을 낭독하다가 어려운 한문 어구가 나오는 대목에서 청중이 어구의 뜻을 물으면 낭독자는 읽기를 멈추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였던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강옥,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75쪽 참조.

6) 조현우, 「국문 고전소설의 현대역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5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52쪽.

이러한 풀어쓰기 중심의 현대역 양상은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춘향전〉 이본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현대역 출판물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전체 이야기를 장회체로 재구성하고 일부 ‘풍기상 여하한 것’을 생략 처리하는 것 외에는 원문을 그대로 살려 활자화하면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한자 병기와 문장부호를 추가하는 정도로만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⁸⁾ 간혹 원문 표기를 현대식 철자법으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원문의 문장 구조는 그대로 보전되었다.⁹⁾ 이들 초기 출판물은 원문을 전혀 풀어쓰지 않았기에 각주가 상세한 편이다. 한시나 고사의 출전을 소개한 뒤 원전의 해당 부분을 한문으로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1970년대부터는 현대역의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원문을 현대어 문장으로 풀어쓴 새로운 출판물이다. 더 넓은 독자층이 고전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장을 짧게 끊고 어려운 한자어나 고사는 쉬운 말로 바꾸어 쓰기 시작한 것이다.¹⁰⁾ 이에 해당하는 몇몇 출판물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성덕이 너부시사 성자성손은 계계승승하사’

7)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30~31쪽.

8) 김기창, 『춘향전』, 을유문화사, 1947; 조운제, 『교주 춘향전』, 을유문화사, 1957; 이가원, 『춘향전』, 정음사, 1962가 이에 해당한다.

9) 김기창(1947)과 조운제(1957) 역주본의 경우 현대식 철자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10) 이민수, 『춘향전』, 서문당, 1975; 정병현, 『춘향전』, 푸른생각, 2013; 길진숙·이기원·고미숙, 『낭송 춘향전』, 북드라망, 201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춘향전〉 역주본이 출판되었으나,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풀어쓰기를 지향하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아 이상의 세 출판물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였다. 구인환, 『우리고전다시읽기2 춘향전』, 신원문화사, 2002와 같이 원문을 충실히 활자화한 역주본도 계속해서 출간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역주본의 주된 흐름은 쉽게 풀어쓰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당시 왕의 성덕이 넓어 성자와 성손이 대를 이어 일어났다.’¹¹⁾
- ‘성덕이 넓으시어 뛰어난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니’¹²⁾
- ‘임금의 덕이 넓어 왕자와 왕손이 대대로 뒤를 이어’¹³⁾

이처럼 이전보다 적극적인 운문이 시도됨에 따라 각주의 개수와 분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한시나 고사가 인용된 부분도 각주 없이 본문에 해석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취리양유훤던 두목지의 풍채년가’

- ‘그의 풍채는 마치 술이 취해 가지고 양주를 지나던 두목지외도 같다.’¹⁴⁾
- ‘술에 취해 양주를 지나던 두목지의 풍채런가’¹⁵⁾
- ‘술에 취한 채 수레를 타고 양주 고을을 지나갔던 두목지가 그랬을까’¹⁶⁾

1970년대 이후 현대역본의 또 다른 흐름은, 이전과 같이 원문 문장을 보전한 출판물이 전문 연구자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영인본을 이미지화하여 본문에 직접 제시하거나, 영인본을 활자화하여 제공하되 원전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 읽도록 하는 등 전문 독자용 출판물로서의 특징이 한층 분명히 드러나는 출판물들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전공 입문자의 원전 해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예비 연구자용 출판물도 찾아볼

11) 이민수(1975), 위의 책, 7쪽.

12) 길진숙 외(2014), 앞의 책, 20쪽.

13) 정병현(2013), 앞의 책, 15쪽.

14) 이민수(1975), 앞의 책, 18쪽.

15) 길진숙 외(2014), 앞의 책, 28쪽.

16) 정병현(2013), 앞의 책, 23쪽.

17) 김현룡, 『판본 및 교주 열녀춘향수절가』, 아세아문화사, 1980; 김진영·김현주·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이윤석, 『완판본 춘향전 연구』, 보고사, 201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원전 영인본 또는 원전을 충실히 활자화한 텍스트를 수록하되 이를 현대식 철자법으로 고쳐 쓴 텍스트와 함께 나란히 제시하여 양자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한 점을 들 수 있다.¹⁸⁾ 전자에 비하면 후자가 더 넓은 독자층을 고려한 결과물이라 하겠으나, 어느 경우든 원전 독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독자용 출판물의 성격을 띤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근래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현대역본은 일반 독자용으로 풀어쓴 출판물(현대역본)과 전문 독자용으로 원문을 보전한 출판물(교주본)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부생 대상 전공 강독 보조교재의 경우 두 유형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문학 전공생에게 요구되는 원전 해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전문 독자용으로 출간된 교주본을 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강생들이 원문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독자용으로 풀어쓰기 된 현대역본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여러 유형의 교재를 모두 다루게 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현대역본과 교주본을 일정한 순서 없이 수시로 오가게 되면서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전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독자와 전문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현대역본과 교주본·영인본이 결합된 교재도 시중에 출간되어 있으나,¹⁹⁾ 이질적 텍스트를 상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교재를 강독 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진행 과정에 맞게 교재 활용 단계를 적절히 구분하는 한편 단계별 교재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독 수업의 단계 구분은 수강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목록에서 시작하여

18) 이석래, 『춘향전』, 범우, 2009; 설성경, 『한국고전문학전집12 춘향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가 이에 해당한다.

19) 현대역본과 원문 영인본이 결합된 경우(송성옥, 『춘향전』, 민음사, 2004)와 현대역본과 원문 교주본이 결합된 경우(심경호, 『춘향전·춘향가』, 문학동네, 2022)를 강독 수업에 교재로 활용하기 적합한 출판물로 분류할 수 있다.

원문 낭독으로 이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강독 수업의 목적인 원전 해독의 핵심이 낭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내용을 묵독 방식으로 충실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는 도입 단계에서는 이미 묵독에 익숙한 현대 독자들이 작품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쓰기 된 현대역본을 주교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청각적으로 긴장감을 줄 수 있게 압축된 원전의 표현은 한문 고사나 한시 어구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그 뜻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내용 파악 단계에서는 운율감을 고려해 배치된 한자어나 고어를 쉬운 현대어로 바꾸는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보다는 ㉡이 묵독을 통한 내용 파악 단계에서 선호되는 교재이다.

㉠ 방자 분부듯고 나귀 안장 짓는다 나귀 안장 지을 제 홍영자지 산호편 옥안금편 황금늬 청홍사 고흔 굴네 주먹 상무 덩벽 다라 청청다리 은입등자 호피도듬의 전후거리 줄방울을 엮불법사 엮쥬메듯 나귀 등터혔소²⁰⁾

㉡ 방자 분부 들고 나귀 안장 지운다. 나귀 안장 지을 때, 붉은 가슴걸이, 자주색 고삐, 산호채찍, 금채찍, 옥안장, 황금굴레, 청홍실 고운 굴레, 갓은 수슬 덩벽 달고 충충한 다래, 은엽등자, 호랑이 가죽 안장에 엮불하는 스님 엮주 매달듯 방울을 앞뒤에 걸고

“나귀 등대하였소.”²¹⁾

㉠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원본을 가로쓰기 활자체로 옮기고 띄어쓰기만 했을 뿐 단어와 문장 구조는 원전 그대로 살린 교주본 형태 자료의 본문이다. ㉡은 낭독에 적합한 형태로,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20) 김진영·김현주·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302~303쪽.

21) 송성욱, 『춘향전』, 민음사, 2004, 17쪽.

읽으면 빠른 속도감과 리듬감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대변하는 효과를 낸다. 이 부분의 문장 구조와 단어 배열은 소리를 내어 읽어 보아야 특유의 어감이 살아나는데, 낭독할 때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독해하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어감을 음미하는 것이다. ㉠과 같은 원문 보전형 교주본의 활용 목적은, 세부 내용 파악보다는 장면이 전반적으로 자아내는 정서적 효과를 음미하고 독자 스스로 이에 감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 파악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강독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 바로 원문 보전형 교주본을 보조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은 한자어와 고어를 현대 독자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고 풀어 쓴 현대역 형태의 자료이다. 각주가 별반 필요 없을 정도로 단어와 문장을 쉽게 고쳤으므로, 원전 특유의 어감은 사라지는 대신 교수자의 설명 없이도 독자 스스로 즉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은 묵독을 통한 내용의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현대 독자의 독서 관습에 맞게 가독성을 높인 자료로 볼 수 있다. 작품 내용 파악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역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전공과목 강독 수업에서는 원전 해독력을 기른다는 목표에 따라 영인본을 교재로 제공하며, 수강생이 영인본 읽기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주가 포함된 ㉠을 보조교재로 활용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각주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전문을 완독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과 같은 형태의 자료도 참조하게 된다. 영인본 독해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강생들은 세 가지 자료를 동시에 참조하는 것이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미 묵독에 익숙한 수강생들은 영인본이나 ㉠과 같은 교주본 형태의 교재를 불완전한 텍스트로 인식한다. 영인본을 읽으며 머릿속에서 ㉠의 형태로 바꾸고, 이를 다시 ㉡과 같이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원전 해독이라고

여기기에 인지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 원전의 특수성은 낭독을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는 청각적 요소들의 풍부함에 있음에도, 이 부분을 탐색하는 대신 낭독체로 된 원문을 묵독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데 집중하게 되는 데서 강독 수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독 수업의 목적인 원전 해독의 본질이 낭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수강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묵독의 방식에서 출발하되 점차 낭독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향으로 강독 수업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을 위계화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역본을 활용한 묵독과 원문 교주본을 활용한 낭독의 단계를 구별하여 순차적으로 실현하되, 묵독을 통한 내용 이해가 낭독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도록 두 가지 독서 방식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²²⁾

실제로 낭독의 문학 교육적 효과에 주목해 온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묵독과 낭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호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관계이다. 묵독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한 뒤 이를 낭독으로 구현하게 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어 온 것이다.²³⁾

22) 전두리(2014), 앞의 논문, 578~579쪽에서는 고전시가 교육에서 낭독의 단계가 친근감 형성 단계, 의미 파악 단계, 청각적 요소 실현 단계로 구분된다고 논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낭독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난해한 한자어와 고어가 자주 등장하는 고전문학의 특성상,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의 청각적 효과까지 감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낭독부터 시도하기는 어렵다. 시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으므로 묵독 단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나, 소설은 인물과 줄거리 파악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의미 파악’ 단계를 묵독으로 진행하며 낭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일례로 일본 고전문학 교육에서 새로운 작품을 배우기 시작할 때 현대역본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읽어오게 한 뒤 각자 인상 깊은 대목을 선택하여 원문으로 낭독하게 하는 것도 묵독과 낭독의 단계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묵독이 내용 파악과 정서적 반응 형성에 중점을 두는 단계라면, 낭독은 묵독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이숙,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변천 및 학습지도 현황』, 『고전문학과 교육』 25, 고전문학교육학회,

판소리계 소설 강독에서 이러한 묵독과 낭독의 단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한 학기 수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다. 전반부 수업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익숙한 묵독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 형태의 자료로 전편을 읽게 한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묵독으로 파악한 내용이 어떠한 청각적 표현으로 형상화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영인본과 ㉡만 활용해 작품을 다시 한 번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수업의 흐름에 따라 교재를 구분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읽어 나갈 수 있다. 다만 전반부 수업에서 이해한 내용을 계속 기억해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강생 중 상당수가 이미 작품의 줄거리와 주요 장면에 익숙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법은 작품을 10여 개의 장면으로 나눈 뒤 각 장면마다 ㉠ 형태의 자료로 묵독을 끝낸 뒤 ㉡ 형태의 자료로 낭독을 해 보게 하는 것이다.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연결 대목은 교수자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주요 장면에 집중하여 묵독과 낭독 두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읽는 방식이다. 장면마다 두 가지 보조교재를 번갈아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의 문제가 따르지만, 묵독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로 낭독으로 재생하며 청각적 표현 효과를 탐구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다. ㉠과 ㉡ 두 자료를 나란히 수록하는 방식으로 통합형 교재를 제작한다면 자료의 혼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에서 고전소설 강독 과목은 한 학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소리계 소설 외에도 다양한 갈래의 고전소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방법

2012, 166~167쪽 참조) 일본에서 고전문학 낭독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인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현대역 인쇄본이 먼저 발간되었던 데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김수희(2010), 앞의 논문, 201~203쪽 참조.)

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더 권장할 만하다. 한 차시당 두세 장면씩 진행하면서 총 4차시 이내에 판소리계 소설 한 편을 강독한다고 가정하면, 총 10장면 안팎으로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강독 수업과 연계한 판소리계 소설 교재 제작과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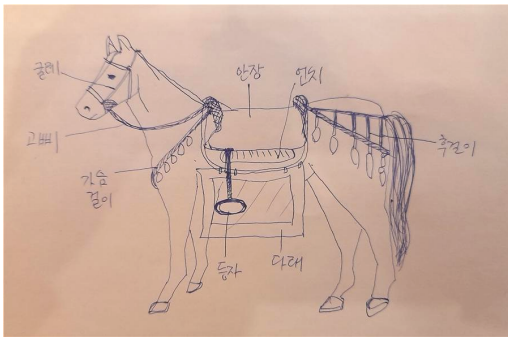
목독에 익숙한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낭독 문화에 입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독을 지향하는 풀어쓰기 중심의 현대역 자료와 낭독을 지향하는 교주본 자료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풀어쓰기와 각주 완비, 원문 보존과 원문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일정한 원칙을 설정하기 어려워 용도가 불분명한 교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강독 수업의 단계를 참조하여 고전소설 현대역의 위계를 목독 중심 단계와 낭독 중심 단계로 위계화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현대역본 제작의 방향을 구분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⁴⁾

먼저 목독 단계의 현대역 자료 제작에서는 독자 스스로 장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인물의 심리를 상상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자어와 고어를 쉬운 현대어 문장으로 풀어쓰다 보면 본문이 길어지고 독자가 습득해야 할 정보량도 늘어난다. 풀어쓴 본문으로만 목독 수업을 할 경우,

24) 대학생과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되어 있는 고전소설 현대역본 중에는 뒷부분에 전문 연구자용 원전 자료를 함께 수록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학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되 독자 집단의 성격에 따라 고전소설 현대역을 위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강독’이라는 특수한 독서 방법이 이러한 위계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전소설 현대역 출판물이 학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지향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권혁래, 「고전문학전집의 수요와 방향 -‘대중성’과 ‘교양’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학회, 2016, 95~99쪽을 참조할 수 있다.

상당량의 정보가 나열된 텍스트를 일일이 해독하는 데 집중해야 하므로 각 장면에 대한 정서적 반응까지 도모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차후 낭독 단계에서 같은 장면을 다시 읽을 때는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상기하면서 이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데 어떠한 청각적 요소들이 동원되었는지를 탐색해야 하므로, 묵독 단계에서부터 세부 정보 독해보다는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 연상을 중심으로 독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장면 연상과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는 삽화보다는 독자의 능동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이미지를 통해 독자 스스로 머릿속에서 작중 장면을 상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한루 나들이를 앞두고 방자가 나귀 안장을 짓는 장면은 [그림1]과 현대역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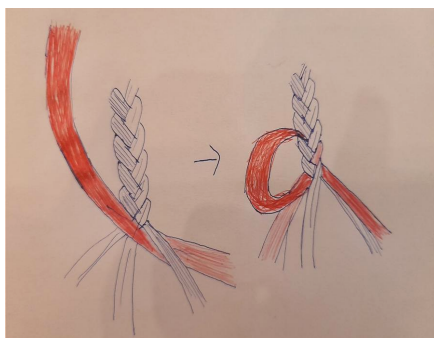
방자 분부 들고 나귀 안장 지운다. 나귀 안장 지을 때, 붉은 가슴결이, 자주색 고삐, 산호채찍, 금채찍, 옥안장, 황금갈퀴, 청홍실 고운 갈퀴, 갓은 수술 덩뽕 달고 층층한 다래, 은엽등자, 호랑이 가죽 안장에 엮불하는 스님 염주 매달듯 방울을 앞뒤에 걸고 “나귀 등대하였소.” (㉠)

[그림1] 춘향전 현대역본 이미지 자료 예시(나귀 안장 묘사 대목)

이 단계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 어구 하나하나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에 등장하는 밑줄 친 단어들을 [그림1]에서 찾아보면

서, 인물이 말의 앞뒤로 분주히 움직이며 나귀 안장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연상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림 자료는 나귀 꾸밈새가 섬세하고 화려하다는 점을 한눈에 알아보게 해 주며, 나귀 안장을 준비하는 방자의 기대감과 만족스러움까지도 상상해 보게 만든다. ㉠의 밑줄 친 부분들을 그림에서 차례대로 찾아보면서, 말의 앞뒤를 분주히 오가며 승마 용구를 갖추는 방자의 분주한 움직임을 연상해 보고 그 심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지 자료가 독자 스스로 장면을 재현하며 인물의 감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게 유도하는 재료로 제공되면, 방대한 본문의 정보를 정서적 의미 중심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후 낭독 단계에서 청각적 표현 요소들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어지는 이 도령 복색 묘사 대목의 경우, 옷차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상상해 보게 할 수 있다. 땡기, 바지와 저고리, 버선과 행진, 주머니 착용 과정을 서술한 현대역 자료(㉡)에 [그림2]와 같은 이미지 자료를 차례대로 덧붙임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몸단장이 이루어지는 작중 상황을 음미해 보게 하는 것이다.



도령님 거동 보소. 옥안선풍 고운 얼굴, 치령치령 술 많은 머리 곱게 빗어 밀기름에 감 채우고, 비단 땡기에 석황을 물려 땡시 있게 잡아 땡고, 성천 수주 겹동 저고리, 흰모시 박음질 바지, 좋은 명주 겹버선에 푸른 비단 대넒 차고, 남빛 비단 민소매 덧저고리에 밀화 단추 달아 입고, 통행전을 무릎 아래 던지시 매고, 두꺼운 비단 허리띠를 차고, 깊비단 둥근 주머니를 여덟 갈래 늘어진 끈으로 매듭지어 던지시 매고 (㉡)

[그림2] 춘향전 현대역본 이미지 자료 예시(이 도령 복색 묘사 대목)

이후 낭독 단계에서 원전의 이 대목을 소리 내 읽어보면, 꾸미는 대상을

나열한 밑줄 친 구절들은 비교적 빠르게 읽히며 해당 부분을 꾸미는 행위를 묘사하는 후속 구절들은 호흡을 한 번 쉬었다가 천천히 설명하듯 읽게 된다. 바깥나들이를 준비하는 이 도령의 들뜬 심정과 함께 옷매무새를 꼼꼼히 점검하는 차분함이 동시에 전달되는 문장 서술이라 할 수 있다.²⁵⁾ 바로 앞의 방자 나귀 안장 짓는 대목과 비교해 보면, 연결어미 ‘-고’를 경계로 병렬되는 문장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 낭독 속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방자와는 달리 신분상의 위신을 생각하며 차분히 외출을 준비하는 이 도령의 심리가 암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낭독의 효과를 충실히 음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묵독 단계에서 이 도령의 몸단장 과정과 심리를 독자 스스로 이미지 자료를 참조해 충분히 상상해 보아야 한다.

묵독 단계의 현대역 자료 제작에서는 유의할 또 다른 사항은, 한시나 고사를 인용한 부분을 풀어쓸 때 암시적 정보를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한시 어구나 한문 고사를 풀어쓰기 할 때에는 통상 문장을 단순하고 쉽게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간명함만을 추구할 경우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자극하기 어렵다. 예컨대 다음 원문(㉔)과 현대역(㉕-1)을 비교해 보면 ‘소관의 부소들과 오나라 정부달’(㉔)이 ‘소관에 있는 남편과 오나라에서 타향살이하는 아내’(㉕-1)로 풀어쓰기 되어 있다. ‘부소(夫戌)’와 ‘정부(征婦)’를 각각 ‘남편’과 ‘타향살이하는 아내’로 바꾼 것이다. ㉕-1의 정보만으로도 인용된 시구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관과 오나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며 부부가 헤어져 지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

25) 해당 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도령임 거동 보소 옥안선풍 고흔 얼굴 전반 갓탄 치머리 곱게 비쳐 밀기름의 잠지우고 / 궁초 당기 석황 몰여 땀시있게 잠바 찢코 / 성천슈쥬 접동빈 세백저 상침바지 극상세목 접보선의 남갑사 단임치고 / 육사단 접비자 밀화단초 다라 입고 통형건을 무릅 아린 는짓 띠고 / 영초단 허리씩 모초단 도리낭을 당팔사 가진 띠담 고를 너여 는짓 띠고”

단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㉔ 춘향이 우지 마라 보수소관첩지의라 소관의 부소들과 오나라 정부덜도 동서 입 기루워서 귀중심쳐 늘거 있고 정직관산노기중의 관산의 정직이며 녹수부용 치련어도 부부신정 극중타가 추월강산 적막한디 연을 키여 상사하니 나 올나간 뒤라도 창전의 명월커든 철이상사 부디 마라²⁶⁾

㉔-1 춘향이 울지 마라. ‘남편은 변방인 소관에 있고 아내는 오나라에 있네.’란 시처럼 소관에 있는 남편과 오나라에서 타향살이 하는 아내가 님 그 리워서 귀중심쳐에서 늘어 있고, ‘먼길 떠나는 길손이 관산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험할꼬’란 시에 나오는 관산의 길손도 있고, 굵디고운 연밥 따는 여인도 부부 사랑 극진하다가 적막한 가을 강산에서 연을 키우며 그리워한다. 그러니 나 올라간 뒤에라도 푸른 하늘에 달이 밝거든 그런 그리움일랑 부디 말아라.²⁷⁾

인물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화나 독백 장면은 이미지 자료로 상상을 촉발하기 어려우므로 풀어쓴 본문 자체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간결하게만 풀어쓰기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생략된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암시적 정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테면 ㉔-1의 밑줄 친 부분은 왕가의 한시 〈古意〉의 전체 맥락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다.²⁸⁾

㉔-2 ‘남편은 소관에서 국경을 경비하는데 아내는 멀리 오나라에 떨어져 걱

26)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2015, 336쪽.

27) 송성욱(2004), 앞의 책, 82~83쪽.

28) 〈古意〉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夫戍蕭關妾在吳 / 西風吹妾妾憂夫 / 一行書信天行淚 / 寒到君邊衣到無”

(남편은 소관 변방을 지키러 가고 아내인 나는 오나라에 있네 / 서풍 불면 나는 남편을 걱정하니 / 한 줄 편지에 천 줄기 눈물 / 추위 닥쳐왔는데 옷은 잘 받아보았는지?)

정하고 있네.’란 시처럼 남편은 변방에 징병되어 가고 아내는 멀리서 님 그리워서 규중심처에 늙어 있고 (...)

㉠-2는 남편이 변방인 ‘소관’이라는 변방으로 징병되어 갔음을 밝힘으로써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아내의 심정을 독자가 더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게 정보를 보충한 것이다. 한시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현대의 독자에게 작중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대역이 요구되는 경우라 하겠다. 이를 통해 이별을 앞둔 이 도령과 춘향의 막막한 심정이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낭독 단계에서 원문(㉠)을 낭독할 때 인물을 둘러싼 암담한 분위기를 어떠한 청각적 요소들로 형상화할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다. 같은 글자 수의 어구가 인접해서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긴 호흡의 리듬감(‘보수소관첩재오라-소관의 부소들과’, ‘정객관산노기중의-관산의 정객이며’), 전체적으로 4음보격이 연속되는 데서 비롯되는 유장함에 유의하며 이 도령과 춘향에게 이별의 시간이 길고 느리게 지속될 것임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풀어쓰기 된 현대역 교재와 이미지 자료를 통해 진행되는 묵독 단계가 완료되면 교주본을 활용하는 낭독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낭독 단계의 교재는 영인본과 함께 이를 활자화하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적용한 교주본을 하나의 지면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 교주본 형태의 보조교재는 영인본에 대한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과 글자 배열을 영인본에 맞게 조절하여 학습자가 양자를 대조하기 쉽게 제작되어야 한다. 독자가 영인본과 교주본을 수시로 대조하면서 점차 영인본 서체를 식별하고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낭독용으로 제작되는 교주본 형태의 교재에 각주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각주의 빈도와 분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묵독용 현대역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나 어구에는 각주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뜻풀이나 출전 설명을 지양하고 문장이나 문단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각주의 분량과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낭독 활동의 목적이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토대로 한 정서적 반응 심화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역주본의 각주를 모두 이미지 자료로 대체하여 종이책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디지털 출판 형태로 낭독 교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링크를 통해 인터넷 상의 이미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한시나 고사의 원전에 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 하려면 디지털 출판 기술을 교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지침에 따라 제작된 낭독 교재를 활용하여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수강생들이 낭독자 역할을 번갈아 담당하는 수업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수강생이 한 번 이상 원전을 직접 낭독해 볼 수 있어야 장면의 정서적 의미가 음성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낭독하지 않을 때는 청자 역할을 하며 교수자나 다른 수강생의 낭독을 비평해 보게 한다.

이때 인쇄본으로는 원문의 청각적 효과를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낭독 교재 활용 시에는 오디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 형태로 낭독 과정을 녹음하고 재생하여 들어보는 방법이 있다. 이미 원전을 낭독한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이 존재한다면 이를 들어보면서 강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음성 파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경우 강독 수업 현장에서 생산된 낭독 텍스트를 녹음하여 공유하면서 자신의 낭독을 평가하고 수강생 간 상호 비평과 의견 교환을 촉진할 수 있다.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며 책의 일부를 낭독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은 수강생들에게 낯설지 않다. 주로 현대시 교육에 국한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은 선행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²⁹⁾ 작가와 은밀하게 일대일로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교육적 효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³⁰⁾

고전소설 강독 수업은 원전을 낭독하면서 교수자와 수강생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방송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강독 수업 전체를 녹음한 뒤, 수업 중 산출된 장면별 낭독 파일을 추출하여 가공하면 온라인 송출에 적합한 길이와 분량으로 편집 가능하다. 각 파일의 앞 부분에는 해당 장면의 전후 맥락을 소개하는 말을 덧붙이고, 뒷부분에는 장면 낭독을 통해 구현된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인터넷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고전소설 낭독 교재의 오디오 버전을 제작해 볼 수 있다. 조별로 방송을 제작한 뒤, 다른 조의 방송을 들어보고 댓글로 의견을 교환해 볼 수도 있다.

현대의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에서 낭독은 목독을 전제로 진행된다. 팟캐스트의 경우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개인적으로 인쇄본을 읽어 온 뒤 스튜디오에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해석과 감상을 뒷받침하는 대목을 낭독하는데, 이는 요약과 분석 중심의 개인별 목독을 전제한 낭독 형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강독 수업 수강생들에게 익숙한 낭독 텍스트는 이처럼 문자 중심의 목독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강독 수업의 낭독 단계에서 제작되는 오디오 교재 또한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지던 낭독 문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면을 낭독하며 문

29) 진가연,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1(1), 2016, 285~312쪽; 권현지·임수경, 「소설 리딩을 적용한 시교육 효과 연구 -팟캐스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4), 2021, 695~725쪽.

30) 진가연(2016), 위의 논문, 296~302쪽.

체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분석과 설명을 통해 결국 수강생 개인별로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을 완성해 나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내면 지향적 독서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고전소설 원전이 지니고 있는 서술의 낭독 지향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보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목록한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며 되새기기에 머물지 않고, 낭독 자체가 장면의 의미 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험해 봄으로써 고전소설 원전의 특수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낭독 단계에서 서술자와 각 인물의 역할을 나눠 라디오극 형태로 작품을 읽는 방법도 있다.³¹⁾ 배역마다 낭독자를 지정해 두면 한 사람이 장면을 낭독할 때보다 전달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소리계 소설은 서술자의 말과 인물의 말이 한 문장 안에서 뚜렷한 경계 표시 없이 교차되므로 명확한 대사 구분이 어렵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춘향모 기가 차서 / 양반이 그릇되미 간농조차 드럿구나 / 어사 짐짓 춘향모
의 하는 거동을 보라 하고 / 시장하여 너 죽것네 날 밥 한 술 주소 / 춘향모
밥 달나는 말을 두고 / 밥 업네 / 엇지 밥 업실고미는 해짐의 흐는 말이였다

위의 대목을 읽어보면 서술자, 월매, 이 도령의 목소리가 수시로 교차하며 연속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판소리의 창자는 인물의 정서에 강하게 감정을 이입하며 이야기를 서술해 나감으로써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므로,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상호 침투하

31) 이윤경, 「고전서사의 라디오 방송극으로의 매체 변용과 특징 - 라디오 방송극 〈운명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3, 2018, 295~306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라디오극 방식의 낭독이 배역에 따라 인물 대사의 특성을 살려 전달력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는 형태를 띠곤 한다.³²⁾ 판소리계 소설 또한 판소리의 서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술자와 인물의 말이 뒤섞이는 현상을 흔히 나타내므로 현대 희곡 읽기에서처럼 배역별로 낭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판소리계 소설은 낭독할 때에는 라디오극 형태보다는 장면별 단독 낭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전의 특성에 부합한다.

다만, 교수자나 발표자의 단독 낭독만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청각적 표현 요소들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주요 장면을 판소리 공연 영상으로도 감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과 음악의 어울림을 판단하는 ‘이면’ 구현은 판소리 감상 교육에서 중시되는 부분으로,³³⁾ 강독 수업에서 장면의 정서적 의미가 낭독으로 잘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참조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이 도령이 퇴령 후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다음 대목의 경우, 사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 도령의 심리가 장단과 악조를 통해 전달된다. 느린 진양조 장단과 높낮이에 큰 변화 없이 저음 중심으로 평탄하게 전개되는 음정을 통해 이 도령의 조급함보다는 방자 앞에서 양반으로서의 체신을 차리려는 태도를 읽게 되는 것이다.³⁴⁾

㉞ 잇떡 이도령은 퇴령 노키을 지달일 제 방지야 예 퇴령 노완나 보와라 아직 안이 노와소 조금 잇더니 하인 물이라 퇴령 소리 질게 나니 조타 조타 올타 올타

32) 김현주, 「판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사적 배경」,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02, 130~134쪽 참조.

33) ‘이면’은 사설의 내용과 음악적 요소가 상호 연관됨으로써 구현되는 정서적 의미에 대한 창자와 청중의 미학적 판단을 뜻한다. 이는 문학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예술 형태인 판소리의 생산과 수용 국면에서 텍스트의 독창성과 합리성을 가능하는 준거 역할을 한다. 최동현, 「판소리의 이면에 관하여 -사설과 장단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4, 2002, 16쪽; 김보배, 『판소리 감상 교육 내용 연구 : 수용자의 ‘이면’ 구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5~26쪽.

34) [그림3]의 악보 이미지 및 이에 대한 장단과 음정 분석은 심상윤, 『판소리 이면의 음악적 표현 연구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2쪽에서 인용하였다.

방지야 등농의 불 발케라 통인 하나 뒤를 싸라 춘향으 집 건너갈 제 지초 업시
가만가만 걸으면서 방지야 상방으 불빛친다 등농을 엮푸 찌라 삼문 밧 썩 나서
서 협노지간의 월식이 영농하고 화간 푸린 버들 몇 번이나 썩겨시며 투기
소연 아히들은 아입청누하야썩이 지체말고 어서가자 그령저령 당도하니



[그림3] 춘향가 중 '퇴령소리' 대목 악보

㉮의 밑줄 친 부분을 낭독해 보면, 문장 호흡이 긴 편이어서 비교적 천천히 읽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금한 가운데서도 위신을 차리며 점잖게 행동하려는 이 도령의 심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판소리 공연에서는 장단의 빠르기와 음정의 높낮이를 통해서 한층 분명하게 나타낸다. 낭독자는 판소리 공연을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음량과 속도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으로 공연되었던 대목은 노래로 감상할 때 비로소 원전에서 환기하고자 하였던 인물의 정서나 장면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예컨대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하며 부르는 '십장가' 대목의 경우, 사설에는 언어유희가 불러일으키는 풍자적 효과가 두드러지지만 진양조 장단의 느린 창으로 들어보면 비장미를 실감하게 된다. 낭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판소리 공연 텍스트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사설, 장단, 악조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안목이 형성된다면 강독 수업은 판소리 공연 감상 교육으로 이어지는 예비 단계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현재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판소리계 소설 현대역본은 대개 목독에 적합하도록 풀어쓰기와 윤문을 거친 인쇄물 형태를 띤다. 이는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이 내용 파악에 집중하는 강독 수업의 도입 단계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판소리계 소설 향유를 마치게 됨을 뜻한다. 목독으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낭독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목독만으로 판소리계 소설 수용이 완료되는 것이다. 개인 독서물로 유통되는 인쇄본 형태의 현대 역본으로는 낭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단위로 소설을 낭독 향유하는 독서 문화가 다시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대학의 전공자 대상 강독 수업을 일반 독서 대중을 대상으로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독 수업의 형태를 참조하여 장면별 오디오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송 텍스트는 판소리계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한 고전문학 읽기에 수반되는 원전 독해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낭독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통상 낭독은 동화나 시처럼 짧은 텍스트만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분량이 길고 문장이 복잡한 소설은 영화나 연극으로 각색하지 않는 한 목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 접하는 소설 작품을 읽을 때에는 목독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를 건너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목독을 통해 내용을 숙지한 작품이라면 낭독으로 새롭게 수용해 보면서 서술의 청각적 효과를 탐색해 보는 경험도 소중하다. 판소리계 소설 원전의 정서와 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강독 수업은 대학에서 전공자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모델로 활용하여 새로운 고전문학 독서문화를 만드는 방안까지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독자들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 주요 작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원전 읽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풀어쓰기만 한 초독자용 현대역본도 아니고 원문에 각주가 잔뜩 달린 연구자용 현대역본도 아니다. 풀어쓰기로 숙지한 내용을 원전의 낭독을 통해 음미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함께 소리 내 읽고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판소리계 소설 현대역본의 최종 형태는 독자 자신의 참여와 성찰을 거쳐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실제 학습자 집단의 반응과 산출물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일정 기간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교재 제작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변인들을 밝히고 판소리계 소설 강독 수업 교재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구인환 엮음, 『우리고전다시읽기2 춘향전』, 신원문화사, 2002, 1~149쪽.
- 김기창, 『춘향전』, 을유문화사, 1947, 1~96쪽.
- 길진숙·이기원·고미숙, 『낭송 춘향전』, 북드라망, 2014, 1~207쪽.
- 김진영·김현주·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2015, 1~377쪽.
- 김현룡 편저, 『판본 및 교주 열녀춘향수절가』, 아세아문화사, 1981/2006, 1~194쪽.
- 송성욱 풀어 옮김, 『춘향전』, 민음사, 2004, 1~344쪽.
- 설성경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12 춘향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1~575쪽.
- 심경호 옮김, 『춘향전·춘향가』, 문학동네, 2022, 1~436쪽.
- 이가원 주석, 『춘향전』, 정음사, 1962, 1~320쪽.
- 이민수 역주, 『춘향전』, 서문당, 1975, 1~229쪽.
- 이석래 역주, 『춘향전』, 범우, 2009, 1~222쪽.
- 이윤석, 『완판본 춘향전 연구』, 보고서, 2016, 1~366쪽.
- 정병헌 책임편집, 『춘향전』, 푸른생각, 2013, 1~159쪽.
- 조윤제, 『교주 춘향전』, 을유문화사, 1957/1962, 1~274쪽.
-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5~39쪽.
- 권현자·임수경, 「소설리딩을 적용한 시 교육 효과 연구 -팟캐스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695~725쪽.
- 김보배, 『판소리 감상 교육 내용 연구 : 수용자의 ‘이면’ 구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34쪽.
- 김수희, 「낭독의 발견 - 일본고전문학과 낭독문화」, 『일본어문학』 51, 일본어문학회, 2010, 189~206쪽.
- 김현주, 「판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사적 배경」,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02, 127~149쪽.
- 남이숙,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변천 및 학습지도 현황」, 『고전문학과 교육』 25, 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47~179쪽.
- 심상윤, 『판소리 이면의 음악적 표현 연구 :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07쪽.
- 이강욱,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57~97쪽.
- 이기대, 「고전소설 낭독의 관련 기록과 현재적 전승 양상」,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2014, 277~308쪽.
- 이민희, 「고소설 낭독의 문화사회사적 실제와 그 의미 - 수직적 낭독과 수평적 낭독의 이해」, 『연민학지』 38, 연민학회, 2022, 359~398쪽.
- 이윤경, 「고전서사의 라디오 방송극으로의 매체 변용과 특징 -라디오 방송극 〈운영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3, 돈암어문학회, 2018, 287~323쪽.
- 조현우, 「국문 고전소설의 현대역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5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47~78쪽.
- 전두리, 「낭독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모색」,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569~590쪽.
- 진가연,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1(1), 국어교육학회, 2016, 285~312쪽.
- 최동현, 「판소리의 이면에 관하여 -사설과 장단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2002, 1~20쪽.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Pansori Novel
Textbooks in classical novel reading class

Kim, Suh-yoon

In the classical novel reading class, which is a major subjec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pansori novels are frequently dealt with.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 of what to select as a reading class textbook among various annotated versions and check the use of textbooks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ading class. These days, annotated versions of classical novels are largely divided into modern translations for general readers and original texts for professional researchers. In the case of the reading class, students begin to read classical novels as general readers at the introduction stage, but ultimately they are aimed at having the ability to decipher original texts as major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tilize modern translations and original texts hierarchically. To do this, first of all, it should be clarified that the essence of the reading of the original text pursued by the reading class is the oral recitation in the community unit, and that the function of oral recitation is in expressing and deepening the emotional response of the audience to classical novels. Next, the class process should be hierarchized so that students who are still unfamiliar with oral recitation can get used to reading aloud by using the familiar silent reading method. At the beginning of the reading class, it is necessary to use the modern translation versions to focus on the contents through the silent reading, bu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induce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rich auditory elements contained in the original text an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original text. At the first stage of silent reading, focusing on imagining the emotion and

atmosphere of the characters rather than acquiring detailed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so that the result of silent reading can be the basis for coordinating the voice according to the emotional meaning of the scenes in the next stage of oral reading.

Finally, the purpose of each step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duction of textbooks. The modern translation versions that will be used in the silent reading stage should be able to stimulate the reader's imagination and emotional responses by containing various image materials and presenting appropriate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quotations of poem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reading and to activate mutual criticism by making the textbook in the form of an audio file to be used in the oral reading stage of original texts.

Key Words

classical novel reading class, pansori novel textbook, modern translation, original text, silent reading, oral recital, hierarchy

논문투고일: 2023.04.03.

심사완료일: 2023.05.02.

게재확정일: 2023.05.04.